

#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저조

### 윤정훈 도의원,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관련 사업 예산대비 집행률 44.3%에 그쳐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은 단 1명 뿐”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5일 진행된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공익 보건의료서비스 시행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무료진료,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등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공성을 지

향하는 군산의료원의 목표에 부합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윤정훈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올해 집행액(지난 9월 말 기준)은 예산 8억100만원 중 2억6,600만원으로 집행 실적 44.3%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세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비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 1억원 중 4,900만원을 집행했고,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3,600만원



중 100만원으로 단 1명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의 경우 1억4,000만원 예산 중 3,500만원만 집행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정훈 의원은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및 입원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액과 인원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관련 예산의 집행 역시 절반도 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군산의료원이 지역의 지방의료원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한 김종훈 경제부지사 (좌) 국회를 방문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예결소위 위원으로 전북지역 예산 확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찾아 전북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 전북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소극적

### 최형열 도의원, “전남, 총 479억 규모 국책사업 유치… 전북은 제대로 된 조직 없어”

전북도의회는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15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선도 주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가 정작 농업분야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전라남도는 총 4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고 지난 8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전북은 농생명 기관들이 집중해 있고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선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그만큼 전라북도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기후환경팀을 구성하고 5명의 인력을 확보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데 전라북도는 기존 조직에서 주먹구구식 기후위기 대응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남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형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은 그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도내 농가인구 대비 농기계 사고발생율 ‘전국 최고’

### 나인권 도의원, “사고 예방 관련 교육실적 지속 감소… 대책 시급”

전북의 농기계 관련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운데,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이 농가인구 대비 농기계 사고발생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현장실무 교육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농기계 관련 사고 건 수



는 연평균 1,273건 발생했으며, 평균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는 각각 89명, 1,009명”으로 나타났다.

나인권 의원은 “농업의 특성상 고령층이 다수인데다 농작업 현장에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적기에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 교육을 검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 도내 기초의회 의정활동 본격화

### 전주시의회 정례회 개최

#### 내달 16일까지 32일간 예산 심사·행감 돌입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에 들어갔다.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최한 제307회 제2차 정례회는 내달 16일까지 32일간 이어진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회기 첫날에는 이보순·박혜숙·채영명·김학송·이국·최용철·이병하 의원 등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비판에 나섰다.

회기 2일째인 16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올해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올해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을 비롯한 인

사문제와 종합경기장 및 역세권 개발, 미:진 축제 등 민선 8기의 막을 올린 우범기市長의 행정에 대한 각종 질의가 예상된다.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각 위원회 차원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의안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6건, 계획안 20건 등 모두 40건이다.

내달 2일부터 8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이어지고, 같은 달 7일부터 15일까지는 올해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살핀 만큼,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발전적인 감사와 각종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

#### 추경·본예산안 심사 행감·시정질문 등 진행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조례안과 남원시 아동·청소년 대중교통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의 조례 10건과 시장 제출안건 18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하고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소태수 의원 외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부안수협이 모든 수산물 제품은  
**100% 국산** 만을 사용합니다.

**특허받은 뽕잎기술!**      **뽕잎간고등어**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혀없는 뽕잎간고등어!**

**뽕잎간고등어가 맛있는 이유**

- 겨울철 참 고등어만 사용해 씹는맛이 다릅니다.
- 특허받은 뽕잎절임기술을 사용하여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습니다.
-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시를 발라내어 조리하시기 편리합니다.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시설공정으로 생산,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식품제조업체 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획득!**

**부안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뽕잎고등어 공정**

전국택배판매 063-584-3101~2